

##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분석

이 보고서는 2025년 12월 1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장 우 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박 윤 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팀장  
김 소 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특수전문직 2급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IMF, OECD 등이 공동 제정한 공공부문 부채 통계 작성지침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liers and Users; 이하 PSDS)에 따라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의 부채를 산출하고 있으며, 포괄범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부채를 산출하여 재정관리와 국제비교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2024년 국가채무(D1)는 1,175.0조원(GDP 대비 46.0%)이고, 일반정부 부채(D2)는 1,270.8조원(GDP 대비 49.7%)이며, 공공부문 부채(D3)는 1,738.6조원(GDP 대비 68.0%)으로 산출되었음

- **국가채무(D1)**: GFSM 1986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정부 및 지방회계·기금의 현금주의 국가채무(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국가의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주요 재무정보로 활용됨
- **일반정부 부채(D2)**: PSDS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로 국제기구(OECD) 제출 및 국제비교용으로 활용됨
- **공공부문 부채(D3)**: PSDS 기준에 따른 공공부문 부채로 기존 일반정부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부채를 포함하여 산출하며,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목적으로 활용하나 이 통계를 산출하는 국가가 OECD 8개 회원국에 불과하여 국제 비교에 한계가 있음

# 1 부채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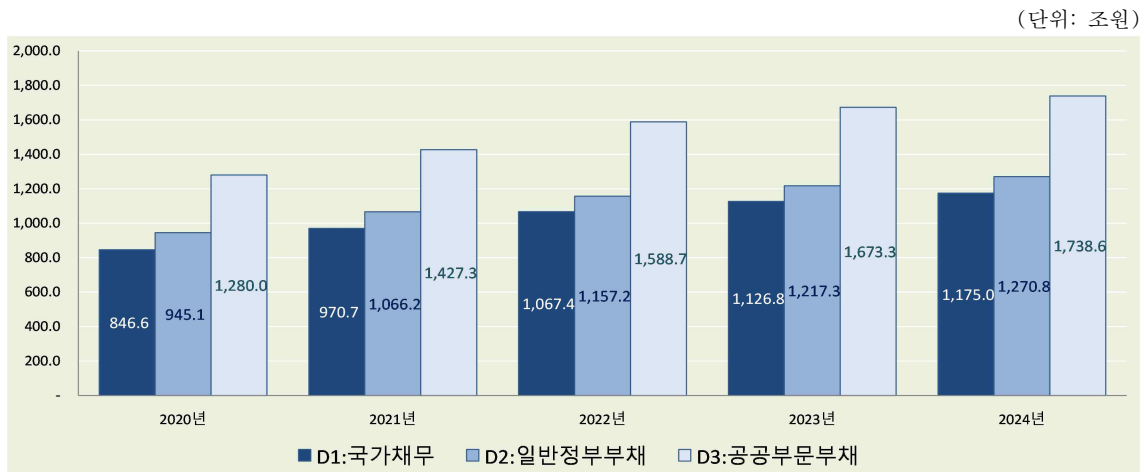
2024년 정부의 포괄범위에 따른 국가채무와 부채(총부채<sup>1)</sup>)의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음

유형	2024년 규모 (GDP 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1,175.0조원 (46.0%)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일반정부 부채 (D2)	1,270.8조원 (49.7%)	D1+비영리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PSDS 발생주의	국제 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738.6조원 (68.0%)	D2+비금융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PSDS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1) 총부채(Gross Debt Liabilities)란 채무상품의 형태를 띤 모든 종류의 부채로, 채무상품(Debt Instruments)은 채무자가 미래의 특정시점에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로 채권, 차입금,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

우리나라의 부채 종류별 총부채 금액의 최근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으며,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D2는 2020년 945.1조원에서 2024년 1,270.8조원으로 증가(연평균 7.7%)하였고, D3는 1,280.0조원에서 1,738.6조원으로 증가함(연평균 8.0%). 2020년의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책대가 2022년까지 이어지면서 부채가 증가하였고, 2022년 이후에는 부채 증가폭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부채 종류별 총부채의 5개년 추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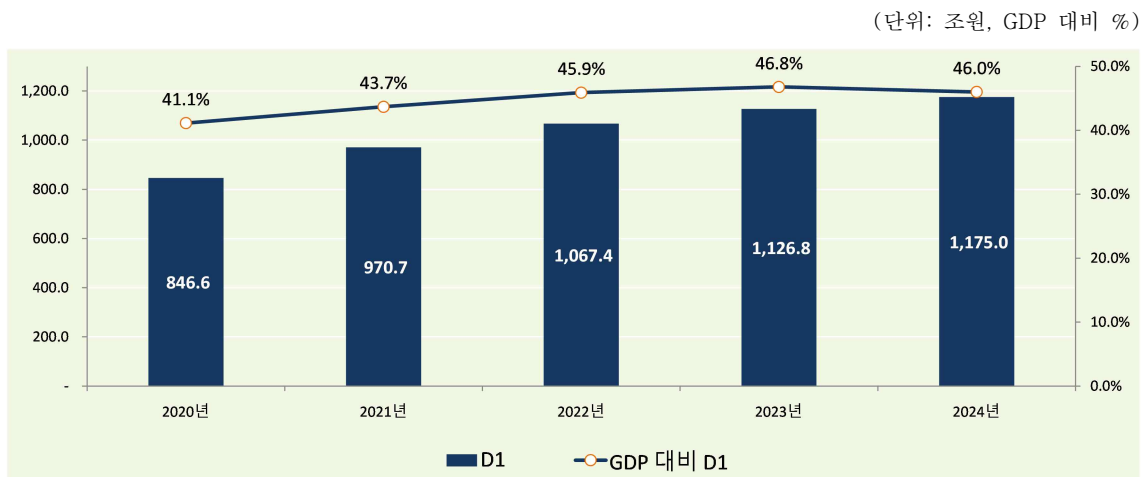


## 2 D1 분석

2024년의 D1은 1,175.0조원(GDP 대비 46.0%)으로 전년 대비 48.2조원(GDP 대비 비중  $\Delta 0.8\%$ )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고채 증가(49.9조원)에 주로 기인함. D1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지출 증가로 인해 매년 증가하여 왔으나 그 증가 폭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GDP대비 비중은 2024년에 감소로 전환함( $\Delta 0.8\%$ )\*

\* 2021년 124.1조(2.6%p), 2022년 96.7조(2.2%p), 2023년 59.4조(0.9%p), 2024년 48.2조( $\Delta 0.8\%$ ) 증가

< D1의 현황 및 추세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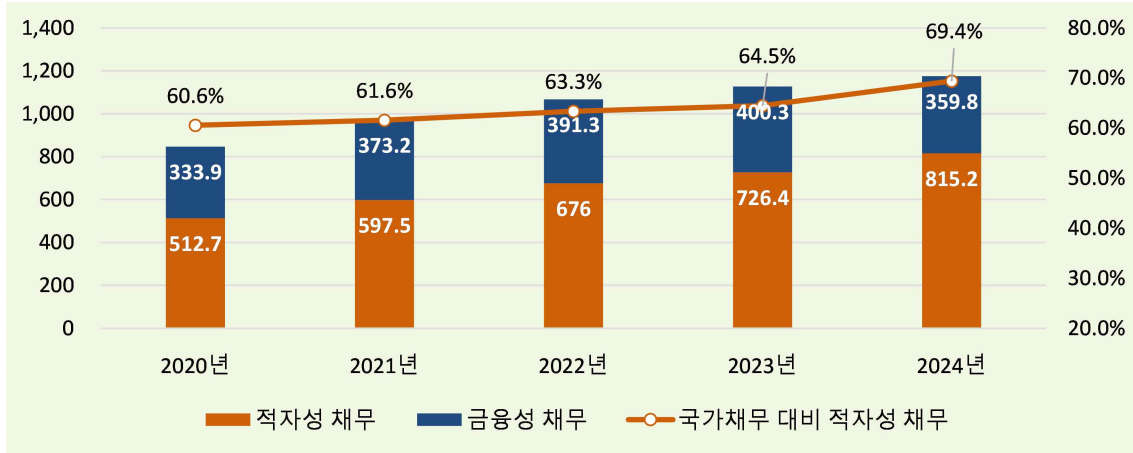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6-1월 VOL.144

D1은 대응자산 유무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할 수 있음.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이며, 금융성 채무는 자산 매각,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임. 적자성 채무의 최근 5개년 추세를 살펴보면,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2020년 60.6%에서 2024년 69.4%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추세 분석 >

(단위: 조원, %)



출처: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2026.1.21. '국가채무 추이'로 조회)

### 3 D2 분석

#### 1 증감분석

2024년의 D2는 1,270.8조원(GDP 대비 49.7%)으로 전년 대비 53.5조원(GDP 대비 비중  $\Delta 0.8\%p$ )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을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중앙정부 부채(1,219.7조원)는 전년(1,167.6조원) 대비 52.1조원 증가함.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을 위한 국고채 및 공채 등 채무증권이 48.5조원 증가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차입금이 2.3조원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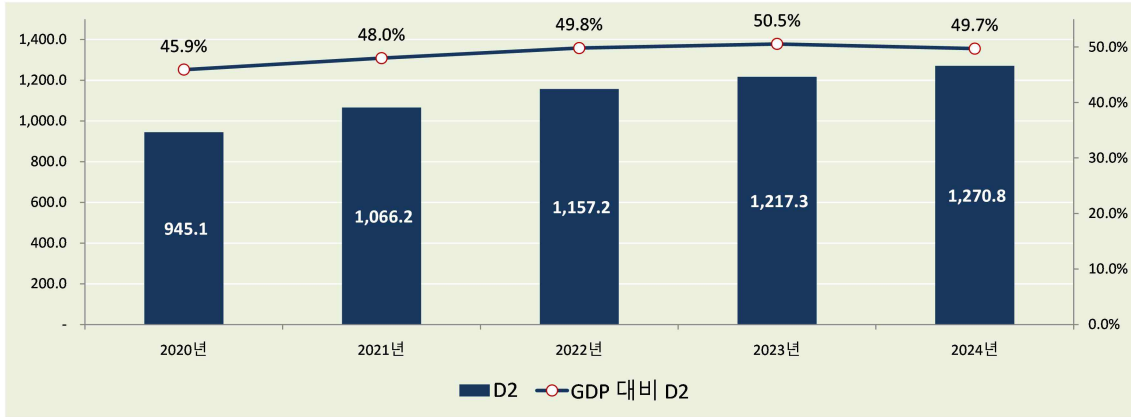
지방정부 부채(74.6조원)는 전년(70.7조원) 대비 3.9조원 증가함. 지방자치단체는 용자 및 기타미지급 증가 등으로 부채가 3.2조원 증가하였고, 교육자치단체는 기타미지급 증가 등으로 부채가 0.1조원 증가함

D2는 2020년 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부채 증가율은 7.7%임. 2020년~2022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그 증가폭은 감소하여 완만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GDP대비 비중은 2024년에 감소추세로 전환함( $\Delta 0.8\%p$ )\*

\* 2021년 121.1조(2.1%p), 2022년 90.0조(1.8%p), 2023년 60.1조(0.7%p), 2024년 53.5조( $\Delta 0.8\%p$ ) 증가

< D2의 현황 및 추세 분석 >

(단위: 조원,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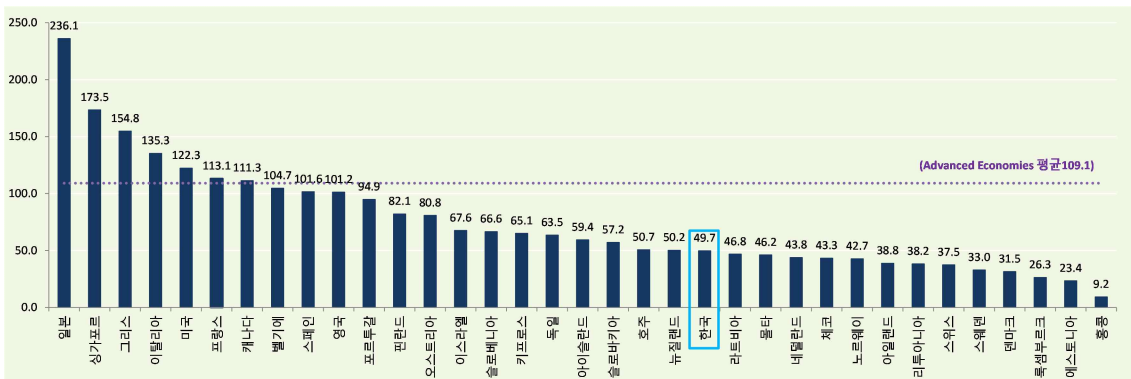
2 국제동향

IMF Fiscal Monitor에서 Advanced Economies(이하 ‘선진국’이라 함) 자료를 이용해 GDP 대비 D2 비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49.7%)는 선진국 전체 평균(109.1%)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D2의 5개년 추세를 살펴보면 선진국 평균의 경우 코로나 대응에 따라 2020년(121.8%)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4년에는 소폭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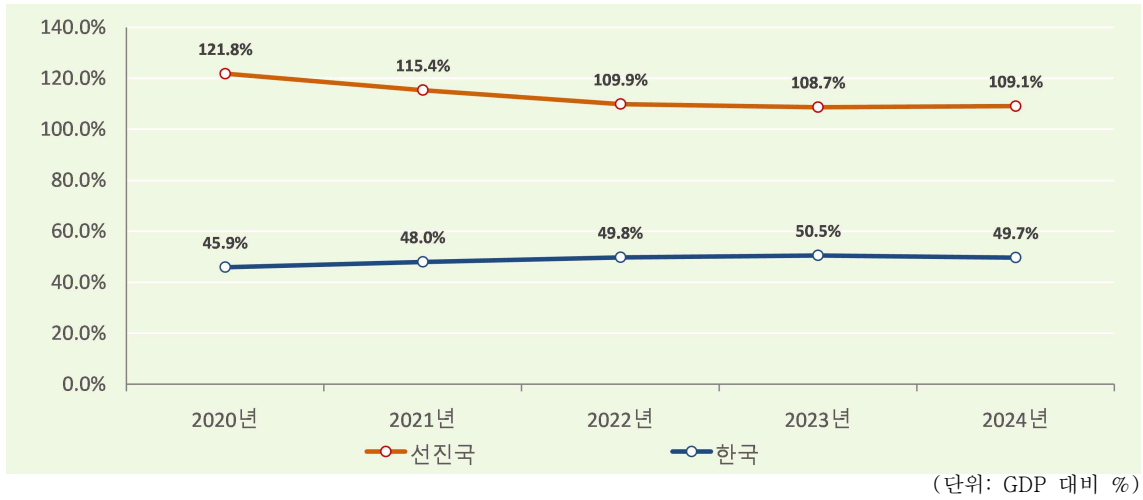
< 일반정부 부채(D2)의 국제 비교 >

(단위: GDP 대비 %)



출처: IMF Fiscal Monitor('25.11) 「Table A7. Advanced Economies: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한국은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 일반정부 부채(D2)의 5개년 추세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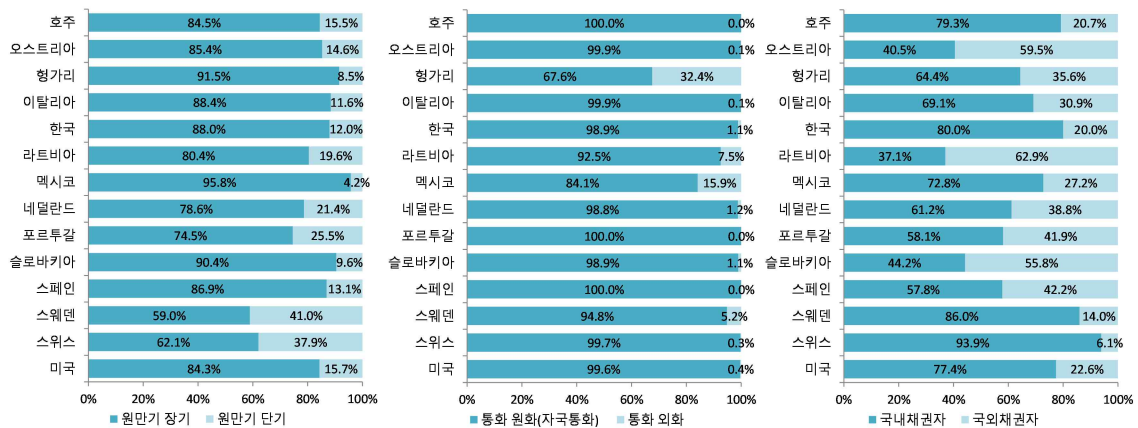


출처: IMF Fiscal Monitor('25.11) 「Table A7. Advanced Economies: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한국은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부채유형별 추가 분석을 위해 OECD 국가의 만기별(장기/단기), 통화별(자국/외화), 채권자 거주지별(국내/국외) 비중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장기부채(88.0%), 자국통화(98.9%), 국내채권자 보유(80.0%) 비중이 높아 부채의 질적 측면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일반정부 부채(D2) 유형별 비교 >

(단위: %)



출처: OECD Data Explorer, National Accounts >> Quarterly Public Sector Debt, 2025.11.3 조회

(원만기별) 대부분 장기부채의 비중이 더 높으며, 장기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로 95.8%임. 반면 단기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로 41.0%임.

단기부채가 많으면, 유동성 위험이 높아지므로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에 상응하는 단기 금융자산 보유를 통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함

(통화별) 대부분 원화(자국통화) 부채의 비중이 더 높으며, 원화(자국통화) 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100%인 반면 외화 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로 32.4%의 비중을 보임. 외화 부채가 많으면, 환위험이 높아지게 되며 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등 환위험 관리가 필요함

(채권자 거주지별) 국내채권자가 보유하는 부채 비중이 더 높은 편이나, 그렇지 않은 국가도 일부 있음. 국내 채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로 93.9%이며, 국외 채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로 62.9%임

## 4 D3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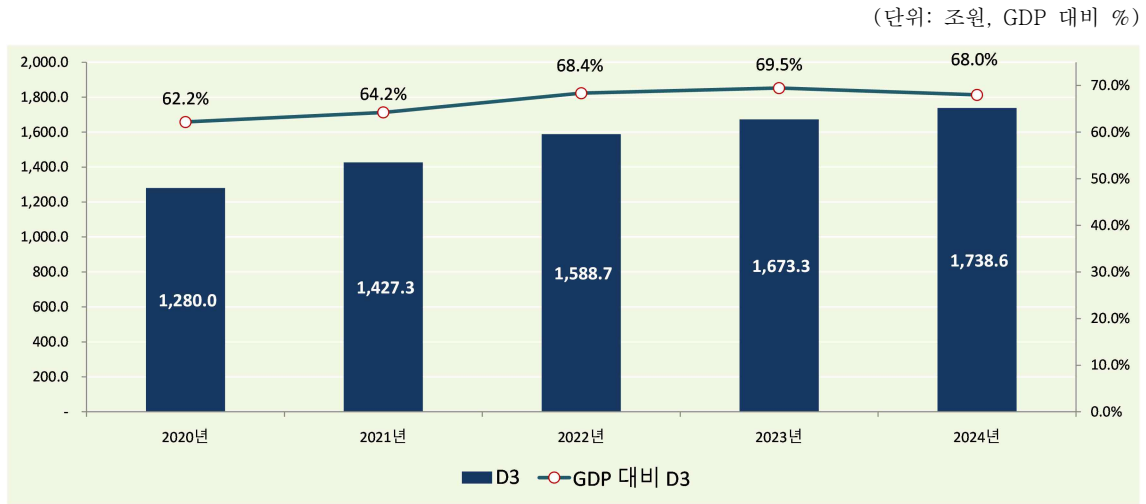
### ㉠ 증감분석

2024년의 D3는 1,738.6조원(GDP 대비 68.0%)으로 전년 대비 65.3조원(GDP 대비  $\Delta 1.5\%p$ ) 증가함. 공공부문 부채 중 일반정부 부채(D2)는 전년 대비 53.5조원 증가하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2.1조원 증가함.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8.7조원, 한국도로공사 3.2조원 등으로 주로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에 기인함

D3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이후 증가폭이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로 전환함

\* 2021년 147.4조(2.1%p), 2022년 161.4조(4.1%p), 2023년 84.6조(1.1%p), 2024년 65.3조( $\Delta 1.5\%p$ )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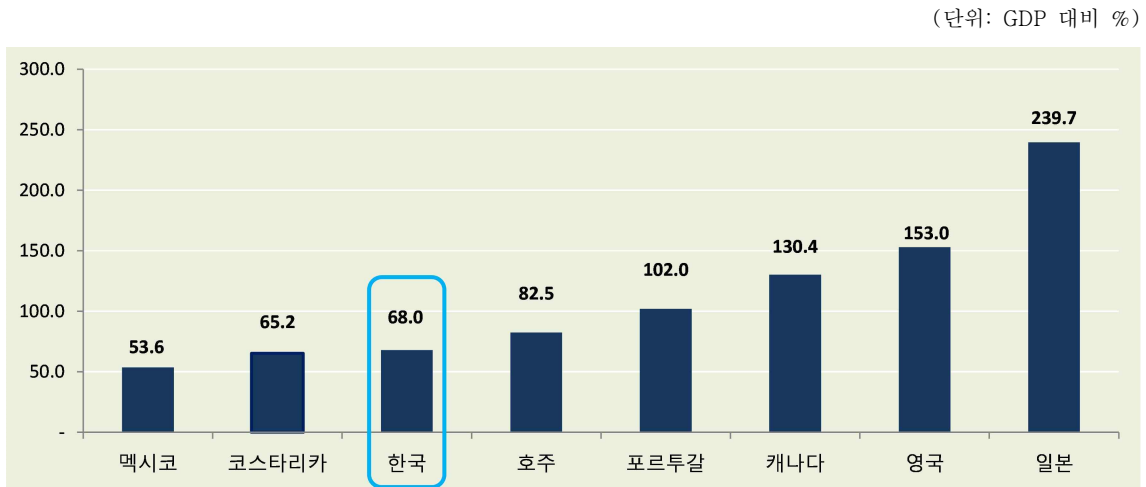
< D3의 현황 및 추세 분석 >



② 국제동향

한국의 D3는 OECD에 공공부문 부채를 공시하는 8개국 중 3번째로 낮은 수준임

< D3의 국제 비교 >



출처: OECD Data Explorer, National Accounts >> Quarterly Public Sector Debt, 2025.11.3. 조회